

3

인문계열 논술고사(서울, 오후) (국어/도덕/사회)

[홍익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국어, 독서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과: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윤리적 접근법, 의무론, 결과론(공리주의), 담론 윤리적 접근, 책임 윤리적 접근,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인공지능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나)~(라)의 입장을 (가)의 윤리적 접근법 중 관련된 것을 골라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의 조건을 세 가지 이상 논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관이다. 의무론의 대표 학자 인 칸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욕구를 극복하고 스스로 정립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인간 의지는 고귀하며, 이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적 행위를 인간다움의 핵심적 요소가 되게 하였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윤리관이다. 결과론은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한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무론적 윤리와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 중심 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대 윤리학에서는 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담론 윤리적 접근과 책임 윤리적 접근이다. 담론 윤리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은 이 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규범 체계이며,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책임 윤리적 접근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역할에 따른 책임과 보편적 책임 그리고 하지 않은 행위와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책임의 범위와 대상도 개인을 넘어 집단, 미래 세대, 동물, 생 태계 등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이 접근은 당면한 윤리 문제를 책임의 관점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제시문 (나)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가 발명되어 직조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자 직조공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숙련 노동자였던 직조공들은 일자리를 잃고 단순 생산직 으로 내려앉아 비숙련 노동자의 대접을 받았다. 때마침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도 시로 내몰린 농민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처우 역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노팅엄셔, 더비셔 등지의 양말공을 필두로 요크셔, 랭커셔의 모직물공에 이르는 노동자 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 기계 파괴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은 오히려 더 발전하였으며, 공장의 자동화는 더 가속화되 었다. 이런 성과들이 방직, 방적 산업 및 관련 산업들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냈다.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새로운 과학 시대, 이른바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고도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갖춘 AI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직업뿐만 아니라 창의 적인 직업까지 전방위적으로 빼앗길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다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AI 로봇의 활용과 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사 회 발전과 인간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제시문 (다)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 으로만 인식한다. 반면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존할 책임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 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여 생태계의 안정을 깨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얼마나 이바 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태 중심주의의 관계 설정 방식은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이 AI 로봇을 '인공 노예'로 취급하 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AI 로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818년에 발 표된 소설 버림 받는 괴물의 절규가 마음을 울린다. "나는 네 피조물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음을 맞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 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도 당신 과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제시문 (라)

우리는 앞으로 AI 로봇을 두고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 로봇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AI 로봇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 지능을 모방하고 인간 역할을 대신할 AI 로봇은 곧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윤리적 행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AI 로봇이 자유 의지 또는 도덕감을 가진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AI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로봇을 도덕 행위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AI 로봇을 '준-도덕 행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통적 윤리 규범을 알고리즘화하여 입력하는 하향식이고, 다른 하나는 AI 로봇이 다양한 현실 상황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보상을 받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별 행위 지침을 학습해 나가는 상향식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인간처럼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행위를 하는 AI 로봇의 개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AI 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AI 로봇의 목적과 활동 맥락에 따라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고 행위 지침을 선별하는 과제도 필요하다. 가령, 환자를 돌보는 AI 로봇을 가족과 같은 특수한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 할지 또는 보조 간호사로서 보편적 이타주의 관계로 설정할지를 고민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AI가 빅데이터에만 의지하여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왜곡이나 비윤리적 정보의 수용으로 인해 AI 로봇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